

부등일보

“전남 체육인들의 자존심 회복에 총력”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남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집체된 전남체육을 살리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체육회로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박 처장은 “전국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 잔치가 아닌, 시도민의 역량과 자존심을 담아내고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올 해 뼈를 깎는 철저한 준비로 무너진 전남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전국체전에서 내리막길을 걸어 전남체육인들의 사기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면서 “전국체육대회가 프로팀 형태로 변모돼 무차별적인 우수선수 영입 등 ‘돈 잔치’로 변질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은 지난 2008년 제89회 대회 전남 개최지 차지했던 종합3위에서 2009년 90회와 2010년 91회 대회서 10위에 기록했으나 2011년 11위, 2012년 12위, 지난해 13위 등 매년 한 등위씩 추락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 개최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전남의 위기감은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매년 꼴찌를 면치 못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한 자릿수 등위 진입에



잔뜩 욕심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박 처장은 새해벽두 부터 예년과 다르게 철저한 분석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가장 먼저 도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등부를 비롯한 학생부의 전력 강화와 우수선수 배출을 위해서는 교육청

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남 전문체육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향후 중점 추진 계획, 종목별 종합분석 등 200페이지에 가까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실천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회 사무처 전 직원 담당종목을 배정한다. 그동안 운영부에서 53개 경기단체를 관리하다 보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판단한 박내영 사무처장은 총무부 직원까지 총망라해 담당종목을 배정했다.

박내영 사무처장은 “중국의 고사 성어 ‘와신상담’을 인용해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자세로 올해 체전을 준비하겠다”면서 “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 시·군위업선수 배정 등을 위한 가맹경기단체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을 계획이다.”

임정욱기자

전남일보

“와신상담... 무너진 전남 체육 자존심 회복하겠다”

새해 새 설계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국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 잔치가 아닌, 시·도민의 역량과 자존심을 담아내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무너진 전남 체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취임 2년째에 접어든 박내영(59)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올해 운영 방향을 ‘전남 체육의 자존심 회복’으로 정했다.

이는 최근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매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전남체육인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은 2008년 전남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이후 2009년·2010년 10위, 2011년 11위, 2012년 12위에 이어 지난해 13위 등 매년 순위

전국체전 순위.매년 하락 전력 강화·우수 선수 배출 성적 부진 사유 분석·반성

가 한 계단씩 추락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전국체육대회 성적 부진은 동·하계전지훈련팀 유지와 전국규모대회 다수 개최 등 ‘스포츠마케팅’ 정책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면서 “올해는 전국체육대회 성적 상승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전남체육 부활을 위해 최근 성적 부진 사유의 철저한 분석 작업을 마쳤다.

전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어 전력 분석과 함께 고등부를 비롯한 학생부의 전력 강화와 우수선수 배출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고, 지난해 11월에는 이들간의 워크숍을 열어 전남체육 부활을 다짐하며 전남 체육인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엮어냈다. 또 전남체육의 향후 중점 추진 계획, 종목별 종합분석 등 200페이지에 가까운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전남 전문체육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자기반성도 했다.

박 사무처장은 올해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그동안 운영부에서 53개 경기단체를 관리하다보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모든 부서를 총망라해 담당 종목을 배정했다. 모든 직원들

이 각 경기단체와 밀착 스킨십을 통해 단체 현황과 동향, 전력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문제점 파악과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시·군 위업선수 배정 등을 위한 가맹경기단체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싸움에서 비롯된 고사로서,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디쓴 곰솔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屈辱)을 달성하기 위해)을 되새기고자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정신을 일컫는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겠다”고 새해 각

최동환기자 dhcho@jinbo.com